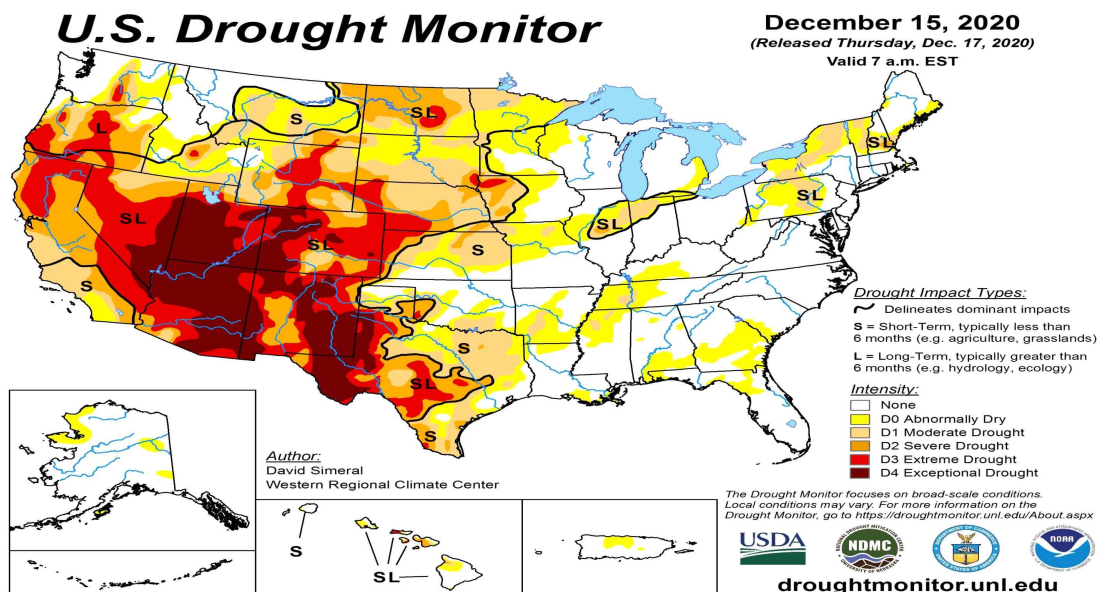


12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51)

□ 미국 기후 현황(12/13~12/19)

여러 기간 동안 폭풍우가 치는 날씨가 남부, 동부, 북서부에 영향을 주었고 한편, 남서부, 평원 북부 및 중서부 위쪽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12월 16~17일에 계절 중 가장 중대하고 광범위한 강설이 북동부를 뒤덮어서 내륙의 여러 지역들은 물론이고 필라델피아, 뉴욕 및 보스턴 같은 주요 도시들에 영향을 미쳤다. 기록적인 총 적설량 (지역적으로 1~3 피트 이상)으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의 넓은 구역들이 인근 주들의 일부를 포함해서 눈에 파묻혔다. 한편, 비 (지역적으로 1~2인치 이상)가 남부,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일부에서의 최종 수확 작업을 곤란하게 했다. 그러나 미시시피 계곡 하류에 내린 비는 최근의 건조 추세를 뒤집었다. 북서부에서는 때때로 내리는 강수가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고 장기 가뭄을 조금씩 물리쳤다. 진눈깨비 소나기가 잠시 캘리포니아 중부와 그레이트 베이슨 일부처럼 먼 남쪽으로 밀고 나아갔다. 다른 곳에서는 심한 가뭄이 남서부에서 지속되었고, 한편 미국 북중부 전역에 걸쳐서 건조한 날씨가 비수기 농장 활동을 계속 촉진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평원 북부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지만 거의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덮었다. 워싱턴과 오레곤 북부에서 몬타나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지만 포 코너스 지역에서 미시시피 계곡 하류까지는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북동부 일부에서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주초에 눈이 내린 후에는 캔사스 서부와 콜로라도 동부처럼 먼 남쪽에서 - 오克拉호마 북서부와 텍사스 최북단은 물론이고 - 10° F 이하의 수치가 많이 보고되었다. 북동부에 내린 눈의 여파로 주 후반의 기온은 뉴욕 동부와 뉴 잉글랜드의 내륙 지역 전체에서 기온이 0° F 이하로 떨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2/13~12/19)

■ 유럽: 서유럽과 남유럽은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중부와 북동부 재배 지역은 점점 더 건조한 상태가 우세했다. 폭풍이 대륙의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스칸디나비아까지 5~70 mm의 비와 산지 눈(액체 등량, 지역적으로 최서단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이)을 발생시켰다. 이 강수는 영양기(남부) 및 휴면기(중부와 북부)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고기압 때문에 유럽 동부 삼분의 일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했다; 단기 건조가 점점 더 뚜렷해졌는데, 동독에서 폴란드 중부까지 30일 강수 총량은 평년의 25%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남단 재배 지역을 제외하면 겨울 작물들이 대부분 휴면 중에 있어서 농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대륙 전체에 계절을 벗어난 온기(평년 대비 2~5° C 이상)가 만연해 있어서 경작지에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눈이 없는 중에도 동사(凍死) 위험을 없애주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와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의 재배 조건이 더욱 개선되었다. 이 비는 건조지 작물들에게 필요했던 표토 수분을 증가시켜 주었고 관개 작물들의 물 수요를 완화시켜주었다. 산발적인 소나기(5~15 mm)가 내린 호주 남동부에서는 지역의 밀, 보리 및 캐놀라 수확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날씨가 덥고 건조해서 야외 작업이 지체없이 계속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서호주는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의 빠른 수확을 도왔다. 서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 C 낮았고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는 평년보다 1~2° C 높았으며,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는 거의 평년에 가까웠다.

■ 아르헨티나: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지역적에 따라서는 강하게 내리면서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했다. 거의 모든 농업 지역에서 10~50 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중에 대부분의 목화 벨트(산타페 북부에서 포모사 동부 전체로까지)를 포함해서 북동부에 가장 많은 비(50 mm 이상)가 내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그 수분이 겨울 곡물들의 수확을 위해서 때에 맞지 않았고 약간의 지연을 초래했을 수 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 C 높았던 북서부(살타와 주변 지역)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업 지방들은 전체적으로 평년에 가깝거나 낮았다. 날씨가 대체로 선선했지만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주말에 폭우가 발생하기 전에 높은 30도대(섭씨)까지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7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68% 및 71%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면화 파종율은 15 포인트 진전되어 71%에 이르렀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6 포인트 뒤쳐져 있다. 한편, 밀은 69%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4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선도적인 생산 주(州)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밀과 보리가 각각 33% 및 32% 수확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 대부분에 다시 유익한 강우가 내린 한편, 먼 북쪽에 있는 주요 대두 생산 지역은 더 건조한 상태가 지배했다. 마토 그로소 도 술과 파라나 북부에서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 전체에 내린 것으로 기록된 강우량은 총 25~100 mm 이었다; 하지만 파라나 남부와 리오 그란데 도 술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곳 여름의 더위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 때문에 작물의 수분 요구량이 높이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4일 현재 옥수수의 62%가 개화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38%에 불과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2월 17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89% 및 88% 파종되었고 출현된 옥수수 작물의 55%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는데 대두는 막 개화하고 있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소나기가 대체로 널리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는데, 마토 그로소 중부에서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5 mm 이하). 건조함과 여름의 무더위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에 도달)가 합쳐지면서 지난 주에 강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의 활력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게 되었다.